

오정환 '노동조합은 나치' 악의적 허위 주장

‘노동조합 혐오’ 발언 명백한 범죄 행위

오정환, 노동조합을 나치에 비유

오정환 보도본부장이 노동조합을 나치에 비유하는 등 심각한 노조 혐오 의식을 드러냈다. 오 본부장은 어제 열린 방문진 업무보고에서 MBC 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 하락의 근본 원인을 묻는 방문진 이사의 질문에 “사내 비방 세력이 외부 매체와 연계해 (뉴스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핵심 배후세력들이 뉴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특정 이념으로 끌고 가려는 지향이 굉장히 강하다. (기자들이) 줄세우기에 굴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을 겁박해 한쪽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힘을 못받는다”고도 말했다.

오정환 본부장은 “(노조가)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안 본다. 파업 끝나고 들어온 경력기자들을 희생양 삼아 나치가 유대인 괴롭히듯 괴롭힌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을 나치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심지어 “아나운서들이 일제히 아나운서국장 나가라고 서명했는데 이게 진심일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정환 본부장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5년 사이 MBC 뉴스의 공신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주범이었다. 김장겸 사장의 최측근 하수인으로 고질적인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고 뉴스를 사유화했다. 그런 자가 공적 석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뉴스 파탄의 책임을 노동조합으로 돌린 것이다.



오정환, 2012년 파업 당시 파업 기금까지 낸 뒤 표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사회1부장이던 오정환은 기자회견 행사에 참여해 파업 기금까지 내놓으며 보직 사퇴를 공언했다. 당시 봉투를 흔들며 “여러분의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발언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보직에서) 곧 내려오겠다고 큰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장기 휴가를 떠나더니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양다리 걸치느라 가량이 찢어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정환은 노동조합 간부까지 지낸 인물이다.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서 그는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예전 노조는 (민주노총의) 이념까지 동의하며 휘둘리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세탁(?)’까지 시도했다.

오정환 발언은 범죄행위, 2년 이하 징역형 등 처벌 가능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오정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의 자유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의 발언은 혐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자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책임지는 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그런 혐오와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그는 방문진 업무보고라는 공식 회의에서, 다른 날도 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 중인 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표명한 의견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뜻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돼있다.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장겸, 고영주는 오정환과 다른가?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장겸 사장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도로 균형을 잡아왔다”고 자평하는 후안무치를 선보였다. 오정환의 발언을 묵인, 방조한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의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원들이) 일을 하긴 하나. 근로자들의 반 이상이 일을 안 하고 회사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영주 씨는 MBC 경영진의 무수한 부당 전보 조치로 많은 직원들이 현업에서 쫓겨난 상황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고영주 이사장은 공안검사 출신의 아스팔트 극우파이다. 그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자 고문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부림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을 기소했고, 지난 2013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인사이다. 이런 자가 여전히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MBC의 현실이다.

지금 MBC는 악랄한 노동 탄압의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오정환 본부장의 발언,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김장겸, 고영주 씨의 언행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백이나 다름 없다. 특별근로감독을 ‘언론 탄압’으로 왜곡하고 법 집행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법당국은 MBC 전현직 경영진의 노동 탄압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범죄 관련자를 모두 엄중히 처벌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아울러 김장겸, 고영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MBC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임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MBC 사측, 특별근로감독 조사 채증

사측이 특별근로감독 조사 과정을 채증하다, 감독 당국과 노동조합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채증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MBC 사측은 상암동 MBC 경영센터 2층에 마련된 특별근로감독실 앞에서 보도국 기자와 촬영 장비를 동원해, 근로감독관들과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계속 채증해왔다. 사측의 채증 행위는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6월 30일부터 하루도 빠지 않고, 감독관들의 출근부터 시작해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됐다.



▲ 감독실 앞에 설치된 보도국 촬영장비

근로감독관들은 이같은 행위가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조사를 받는 조합원들을 위촉시키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카메라를 철수해줄 것을 현장에서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노무부를 통해서도 채증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취재 행위라며 이 요청을 반복해 묵살했다. 그러나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사측의 감독 기간 보도국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 취재를 가장한 채증 행위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시작된 어제 채증 사실을 알고 강력히 항의했다. 사측은 감독 당국과 노동조합의 항의를 받은 뒤 어제 오후에야 뒤늦게 채증을 중단했다. 이같은 채증 행위는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1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명백한 감독 방해, 불법 행위

특별근로감독은 제보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사법절차이다. 따라서 사측의 채증 행위는 조합원 등 MBC 구성원들을 위촉시켜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겁박하는 행위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인 부당노동행위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는 근로기준법 102조에서 보장한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심문을 방해한 행위이며 또한 노동조합법 81조 4항에서 금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지시한 사람과 이행한 사람 모두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이다.

MBC 사측의 상습적인 채증 행위



▲ MBC 경비업체 직원 노조 투표소 사찰 발각

https://youtu.be/iR229USN_Hk

MBC 사측은 지난해 3월 미디어센터 4층 옥상에서 청경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표를 채증하다 적발됐다. 채증이 문제되자, 김장겸 사장 취임 이후에는 보도국 촬영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취재를 가장한 채증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MBC 조합원들이 사내 로비나 회사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사회2부(부장 김태진)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영상이 보도된 적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채증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노조 탄압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낱알이 기록해왔다. 이번에 발생한 근로감독방해 채증행위는 물론,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